

임용시험 후기

98학번 옥정근

응시지역: 광주(2005년 12월)

관부지역: 광주공고

안녕하세요! 영교과 후배 여러분.

저는 98학번 옥정근입니다.

먼저 제가 교직에 들어온 후 생긴 소망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학교 발령받고 막상 학교에 가면 많은 영어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전남대 영어교육과 출신 선생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후배님들이 합격하셔서 어느 학교를 가도 전남대 영어교육과 선, 후배들이 서로를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너무 부담을 졌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그럼 이제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용공부 할 때 제가 가장 중요시 했던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무엇이든지 영어로 된 것을 많이 읽고, 많이 써보기,

둘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직접 예상문제 만들어보기

첫 번째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저는 기본서 외의 원서로 된 전공서적을 몇 권 읽었습니다. 서점에 가면 영어교육 전공 서적이 많이 있는데, 그 중 새로운 들어 온 책이라든지 혹은 읽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같은 시험준비를 하는 사람이 봤을 땐, “그 책을 왜 읽느냐”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지만 저는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읽었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의 저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에서 지문만 출제돼도..., 문제 지문을 접했을 때 언젠가 읽어본 것 같다는 느낌만 받아도 심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수월할 거야”라고....

일반영어를 따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후배들이 많은데 저는 일반영어 따로 준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서적을 잘 읽는 것만으로도 일반영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많이 읽으면 독해력이 향상됩니다. 읽고 나서는 읽은 내용을 영어로 요약해 책의 여백이나 연습지에 적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작문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 즉시 예상문제를 만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상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만들었던, 생각나는 예상문제를 중 두 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교수법: displayed question과 referential question

상황: 시험문제에 displayed question과 referential question들의 정의와 관련된 지문이 나온다. 문제의 보기에 여러 가지 question들이 제시되어 있다.

문제: 지문을 참고해서 보기의 질문들을 displayed question과 referential question 두 가지로 분류하기

해결책: 교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보고 두 가지 질문 유형으로 분류해보기

영어학개론: word coinage

상황: 두 개의 지문이 있다.

첫 번째 두 사람 대화체의 지문에 Let's google the internet.이라는 대화문장이 있다. 두 번째 지문은 word coinage에 관한 내용의 글이다.

문제: 밑줄 친 단어 google은 여러 가지 단어 조어법 중 어디에 속하는지 두 번째 지문에서 찾아 쓰시오.

해결책: google이 유명 검색엔진이라는 것 알고 있죠? 요즘에는 많은 원어민들이 '인터넷 검색하다'라는 표현으로 'search into the internet' 대신 google을 동사로 해서 google the internet 쓴다는 것을 EBS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이러한 표현 또는 단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석해보는 것은 꼭 시험준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어지식을 쌓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예상문제를 만들어 봤을 때의 이점은 공부한 내용이 머리 속에 오랫동안 남는 것과 공부한 내용을 자신이 정말 잘 알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그룹으로 공부를 하든지 혼자서 하든지 꼭 문제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을 교육학 공부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서(저자가 누구든 상관없음)를 강의(인강이나 테잎) 들으면서 한두 번 정도 보세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기출문제집을 구입해서 풀면 됩니다. 교육학 기출 문제를 풀다보면 중요한 문제들은 해마다 다시 글자 몇 자만 바뀌어서 출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내용은 다시 기본서를 보고 정리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기본서는 전혀 보지 않고 기출문제만 풀어보고도 교육학에서 고득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출제경향을 봤을 때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전공 지식이 아니라 어떤 글이든지 소화할 수 있는 독해능력입니다. 무엇이든지 많이 읽어서 독해능력을 기르세요. 독해 실력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지역에서도 임용 2차 시험으로 영어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랍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나중에 당황해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두서없이 쓴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세운 목표 꼭 달성해서 함께 근무하는 그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영교과 파이팅!!!